

한국 도서관계에서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의 의미

Readers' Advisory and Bibliotherapy in Korean Library Community

이 제 환(Jae-Whoa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한국의 독자상담과 독서치료 |
| II.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의 관계 | 1. 도서관 실무에서의 특징 |
| III. 미국의 독자상담과 독서치료 | 2. 교육과 연구에서의 특징 |
| 1. 도서관 실무에서의 특징 | V. '한국적' 현상의 의미와 과제 |
| 2. 교육과 연구에서의 특징 | 1. 한국적 현상의 의미와 원인 |
| | 2. 한국형 모델로의 발전 과제 |
| | VI. 결론 |

초 록

이 글의 목적은 2009년 현재 한국 도서관계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서 주도의 독서치료 활동이 한국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다. 논의의 중점은 역사적 관점에서 이론적 뿌리를 찾아가는데 두었으며, 이 과정에서 독서치료에 비해 보편적이지만 도서관적 전통과 이론적 기반은 훨씬 튼튼한 독자상담 영역과 비교하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더불어, 한국 도서관계의 상황을 한국보다 앞서 독서치료를 시행해온 미국 도서관계의 상황에 비교하면서 한국 도서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서치료 활동의 특이성과 고유성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적 현상'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키워드: 독자상담, 독서치료, 참고봉사, 정보서비스, 독서지도, 한국도서관, 미국도서관

ABS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discuss about the strategies and methods that the Korean library community should follow to make the ongoing experiment of 'bibliotherapy program' be successful, and eventually, settle up as a regular library service program. The main focus of discussion was on figuring out both theoretical foundations and historical roots that can justify such an experiment in Korean libraries. To the end, a comparative analysis to Readers' Advisory Services was conducted, and also done for comparing the special features in Korean libraries with those of American libraries, especially as related to library services to readers. The final suggestion includes the tasks that Korean LIS scholars should undertake to make the ongoing bibliotherapy experiment become an indigenous Korean model for library services.

Keywords: Readers' Advisory, Bibliotherapy, Reference Services, Information Services, Reading Guidance, Korean Libraries, the U.S. Libraries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 접수일: 2009년 12월 5일 • 최초심사일: 2009년 12월 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12월 26일

I. 서론

독서치료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관심이 뜨겁다.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규 서비스로 운영하고자 하는 도서관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도서관을 넘어 대학도서관까지 확산되고 있다. 우리에게 도서관문화를 전달해준 미국 도서관계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우리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문헌정보학계의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서의 전문성을 개발하여 사회구성원들이 도서관과 사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호기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 도서관과 사서의 역량을 넘어서는 과도하고 위험한 실험으로 간주하면서 부작용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동시에 존재한다.

전자 그룹의 입장은 명료하다. 도서관문화가 전파된 지 60년이 넘도록 도서관과 사서의 존재감조차 미미하던 우리 사회에서 독서치료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만족과 여론의 지지를 끌어낸 것은 물론이고 사서집단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는 현실에 한껏 고무되어 있다. 반면에 후자 그룹은 '자격의 부족'과 '경험의 미비'를 지적하고 있다. 도서관 참고봉사의 핵심 기능인 독자상담(Readers' Advisory) 서비스조차 제대로 실시해 본 적이 없는 우리의 도서관에서 독자상담보다 몇 단계 전문적인 서비스인 독서치료를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과장과 허식'의 여파로 보고 있다. 무자격자의 과도한 욕심이 오히려 화를 부를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우려한다.

그러나 후자 그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서치료에 대한 도서관들의 관심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 앞 다투어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도서목록'을 개발하고 있으며, 별도의 서가를 마련하여 '독서치료 코너'를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현장의 분위기는 문헌정보학계에도 영향을 미쳐 독서치료를 바라보는 학계의 관심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성공담이 연구물의 형태로 발표되고 있으며,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보편적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도서관 현장의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은 교육주체에까지 영향을 미쳐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에 독서치료 관련 교과목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독서치료의 '성급한 확산'을 경계하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힘을 잃은 것은 아니다. 도서관 현장에서의 '치료 행위'는 늘어가는데 '치료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이론적 근거의 확보가 더딘 현실을 그들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도서관계에서 생산하는 독서치료 관련 연구물의 대부분은 주관적 경험담과 프로그램 매뉴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성과는 좀처럼 눈에 띄이지 않는다. 도서관 현장의 성공담이 직업적 영역의 확보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인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론적 증거의 축적은 필수적이다. 성공이 아무리 눈부시다 하더라도 무자격자의 치료 행위는 단 한번의 실수

조차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글에서는 우리 도서관계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서 주도의 독서치료 활동이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논의의 중점은 역사적 관점에서 이론적 뿌리를 찾아가는데 두었으며, 이 과정에서 독서치료에 비해 보편적이지만 도서관적 전통과 이론적 기반은 훨씬 튼튼한 독자상담 영역과 비교하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더불어,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앞서 독서치료를 시행해온 미국의 상황에 비교하면서 우리 도서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서치료 활동의 특이성과 고유성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적 현상’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II. 독자상담¹⁾과 독서치료²⁾의 관계

독자상담과 독서치료는 ‘행위’의 과정에서 책을 매개로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행위의 주체와 목적에 있어서는 상이한 개념들이다. 전통적 관점에서 볼 때, 독자상담의 목적이 적합한 책의 선택을 위해 독자에게 도움(guidance)을 주는데 있다면, 독서치료의 목적은 적합한 책을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treatment)하는데 있다.³⁾ 또한 독자상담이 도서관을 무대로 하여 사서가 주도해온 업무라면, 독서치료는 의료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정신의료 전문가가 주도해온 업무이다. 그런데 책의 치유적 효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책의 최대 집적소로 도서관이 존립하다보니, 독서치료가 마치 도서관의 고유 기능이며 사서의 전문 업무인 것으로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책은 도구일 뿐 책을 이용한 치료 행위는 도서관 영역이 아닌 정신의학이나 임상심리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⁴⁾

- 1) 한국 도서관계에서는 Readers' Advisory를 『독자상담』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면서, “독서에 대한 전문적 입장에서 개개인의 독서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면접이나 서신 등을 통하여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독서지도의 한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문헌정보학용어사전, p.93). 그러나 이 글에서는 Readers' Advisory의 개념에 충실하고자 『독자상담』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2) 한국 도서관계에서는 Bibliotherapy를 『독서요법』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면서, “정신건강상 또는 신체의학상 치료를 목적으로 독서를 시키는 치료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문헌정보학용어사전, p.93). 그러나 2009년 현재, 한국의 도서관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문헌정보학계에서도 독서요법보다 독서치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 글에서도 bibliotherapy의 번역어로 『독서치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 3) 독서치료에 대한 광의의 해석, 즉, 발달적(developmental) 혹은 자가적(self-help) 독서치료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여기서는 일단 독서치료의 원의에 충실하고자 한다.
- 4) 정신의학과 임상심리 영역에서는 독서치료를 “the guided use of reading to regain mental health, always with therapeutic outcome in mind”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책의 도구적인 측면과 정신의학 전문가의 주도적인 치료 행위를 강조한다. 그들은 독서치료를 정신질환 혹은 이상심리의 치료를 위한 여러 방법들(놀이치료, 음악치료, 연극치료 등)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Gilda Katz and John Watt, “Bibliotherapy : the Use of Books in Psychiatric Treatment,”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Vol.37, No.3(Fall 1992). p.173.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4호)

책을 매개로 하여 도서관에서 제공하던 이용자서비스의 핵심은 독자상담이었다. 사서는 독자상담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그들의 관심과 요구에 적합한 독서자료를 안내함으로써 양질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⁵⁾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도서관계에서 이러한 독자상담을 시작한 것은 1세기가 넘지만, 도서관학자들은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를 독자상담 업무의 황금기로 본다. 독립적인 부서를 설치하고 개별 이용자와의 상담에 기초하여 독서목록을 만들어주고, 때로는 독후의 논의까지 진행하던 독자상담 업무의 전성기였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개별 이용자를 위한 전통적 방식은 축소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말에 이르면 공공도서관의 1/5만이 과거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할 정도로 독자상담 업무는 쇠락하였다. 특히, 1980년대부터는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개별 이용자를 위해 독서목록을 만들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독서목록을 제작하여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간접적인 업무 방식은 현재까지 이어져 독자상담 업무의 주요 형태를 이루고 있다.⁶⁾

한편, 독서치료에 대한 미국 도서관계의 관심은 독자상담 업무의 이러한 변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가령, 독서치료에 대한 사서들의 관심은 독자상담 업무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확산되다가 개인 독자를 위한 전통적인 독자상담 업무가 축소되던 1970년대 후반부터는 덩달아 위축되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도서관계에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책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시기는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⁷⁾ 이후 1910년대 후반부터 2차 대전이 종료되기 직전까지는 주로 재향군인병원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전문의와 의학사서가 협력하는 형태로 독서치료가 간간히 시행되었다. 그 외중에 미국 도서관계도 독서치료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을 보여 1939년에는 ALA의 Hospital Division이 주도하여 독서치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차 대전이후 병원도서관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일부에서나마 지속되던 독서치료에 대한 도서관계의 관심은 전반적으로 시들해졌다.

5) 1876년 미국의 Samuel Green이 '독자에 대한 사서의 인적 협조가 절실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참고서비스의 개념을 도서관에 처음으로 도입하던 시절부터 사서가 수행해온 인적 협조의 핵심은 독자상담이었다.

6)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 독자상담 업무가 위축되기 시작한 데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사서들의 정신적 노고와 투입 비용에 비해 업무의 효율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도서관경영진의 판단이 작용하였다. 특히, 전반적인 경기 후퇴로 도서관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비효율적인 업무를 축소 또는 대체하고자 했던 경영 혁신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둘째는 1968년에 프랑스에서 시작된 반문화혁명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반문화혁명의 영향을 받은 진보적 성향의 미국시민들은 당시 공공도서관에서 행해지던 고전을 중심으로 한 독자상담 업무가 빈곤 계층의 저항을 저지하고 체제 순응을 도모함으로써 지배 계층의 보수적 권위주의 유지에 일조해온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그들은 공공도서관에 고전을 대체할 대중적 '독서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서관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중의 오락과 여가를 위한 책(가령, 장르를 대표하는 책, 베스트셀러 등)을 집중적으로 수서하는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던 전통적인 독자상담 업무 또한 대중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7) 관련 문헌에 의하면 1904년에 Massachusetts주의 McLean Hospital에 근무했던 Jones라는 이름의 사서에 의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처음으로 책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행위는 있었지만 용어는 없었다. 독서치료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16년에 McCord Crothers에 의해서였다. Rhea Rubin, *Using Bibliotherapy : A Guide to Theory and Practice*(Phoenix, AR : Oryx Press, 1978), p.14.

그러다가 앞서 언급한대로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독서치료에 대한 미국 도서관계의 관심은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일부 진보적 성향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앞장서서 사회적 소수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⁸⁾ 당시 그들로 하여금 독서치료에 관심을 갖게 만든 배경에는 전통적인 독자상담을 통해 축적해 놓은 업무 경험과 독서치료를 독자상담의 연장선에서 해석하고자 했던 몇몇 도서관학자들의 영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Hannigan 같은 학자는 “독서치료에서는 임상적 치료행위보다는 독서행위를 통한 정보의 습득과 자율적 문제해결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서들이 가지고 있던 독서치료의 임상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자 시도하였다.⁹⁾ 그러한 시도와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비록 소수이긴 하였지만 공공도서관 사서들 사이에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져갔던 것이다.¹⁰⁾

독서치료를 이렇듯 정신의학의 범주에서 사서의 업무 영역으로 편입하고자 했던 도서관학자들의 노력은 1970년대로 이어졌다. 가령, 당시 참고서비스 영역의 대표적 학자였던 Monroe는 독서치료를 도서관 참고서비스의 연장선에서 설명하면서 ‘확장된 독자상담’의 개념에서 독서치료에 접근하고자 하였다.¹¹⁾ 또한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Rubin은 독서치료를 기관적(institutional), 임상적(clinical), 그리고 발달적(developmental)으로 유형화하여 접근하면서, 임상적 독서치료는 정신의학자들의 전문 업무로 남겨두되 발달적 독서치료를 전통적인 독자상담의 ‘특화된’ 형태로 규정하였다.¹²⁾ 이처럼 Monroe와 Rubin은 독서치료를 사서의 업무 영역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키고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의 이론적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독서치료를 광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은 당시의 사전적 정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독서치료는 “정신의학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방법 중의 하나”라는 기존의 의미에 더해 “사서에 의한 발전된 형태의 독자상담”으로 개념의 폭을 넓혀갔다.¹³⁾

이처럼 미국의 도서관계에서 독서치료는 독자상담 업무의 건강한 전통과 이론적 기반에 밀접하

8) Rubin, *Ibid*, pp.14-29.

9) Margaret Hannigan, “The Librarian in Bibliotherapy : Pharmacist or bibliotherapist?” *Library Trends*, Vol.11 (1962), p.192.

10) 이러한 관심은 독서치료 시행 방법에 대한 매뉴얼의 개발로 이어졌으며, 이에 더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주관하는 독서치료 워크숍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AHIL(Association of Hospital and Instruction Libraries)의 Committee on Bibliotherapy에서는 독서치료에 대한 지침서를 편찬하였으며, 이에 더해,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가 주최하고 ALA가 후원하는 독서치료 워크숍이 1964년에 Saint Louis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워크숍에는 정신의학, 임상심리, 간호학, 사회복지, 도서관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Ruth Tewa, “Progress in Bibliotherapy,” *Advances in Libraries*, Vol.1(1970), p.182.

11) Margaret Monroe, “Reader Services and Bibliotherapy,” In : Margaret Monroe, ed. *Reading Guidance and Bibliotherapy in Public, Hospital and Institution Libraries*(Madison, WI : University of Wisconsin Library School, 1971), pp.40-44.

12) Rhea Rubin, *ibid*, p.7.

13)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Springfield, MA : Merriam-Webster, 1981)에서의 bibliotherapy에 대한 설명.

게 연계되어 있다. 1960~70년대에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진보적 성향의 도서관학자들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독서치료를 ‘특별한 형태의 독자상담’으로 정의하면서 도서관 업무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도 독자상담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누적된 지식과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실제로, 독자상담의 철학과 원리에 관련하여 생산되어온 많은 연구들은 독서치료에 관심을 가진 사서들에 의해서 현재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자가 당면한 문제(혹은 needs)의 본질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연구들은 물론이고, 사서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관한 모델과 이론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목록의 개발과 제공 방법에 관한 연구들에 이르기까지 독자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해온 이론적, 경험적 기반은 독서치료 업무를 위한 지식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듯 탄탄한 이론적, 경험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독서치료는 미국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 관련 서비스 중에서 매우 ‘한정된’ 위치에 머물러 왔다. 진보적 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독서치료의 수용을 놓고 미국 도서관계 내부에서는 갈등과 고민이 있었으며, 그러한 갈등과 고민은 결국 ‘제한적’ 수용으로 가닥을 잡아왔다.¹⁴⁾ 독서치료의 수용을 둘러싼 갈등의 저변에는 “독자상담자로서의 사서의 능력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하는 직업적 전문성과 업무의 경계를 둘러싼 사서 집단의 진솔한 고민이 있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독서치료를 광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했던 여러 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therapy’라는 용어가 주는 심리적 장벽이 사서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Therapy는 그들에게 있어 “치료(treatment)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의미하였으며, 치료가 아닌 안내(guidance)의 관점에서 독자상담 업무를 수행해 왔던 사서들로서는 그들의 직업적 능력과 업무의 경계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¹⁵⁾

“책이 정신건강의 유지와 회복을 위한 의약품”이라는 오래된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도서관을 통해서 그러한 의약품을 선정하고 관리하고 제공하는 것이 사서들의 오래된 의무이자 권리였지만, 미국 사서들은 독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들의 전문성이 상담과 자료의 제공에 머물러야지 직접적인 치료 행위에까지 이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¹⁶⁾ 무엇보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교육의 내용과 수행해온 업무의 내용이 치료사(therapist or clinician)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 사회가 독서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공인해 준 자격은 독서자료에 대한 안내(guidance) 혹은 참조(referral)임을 잘 알고 있었다.¹⁷⁾ 이처럼 미국의 사서들은 자신의 전문

14) Beth Doll and Carol Doll,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Englewood, CO : Libraries Unlimited, 1997), pp.16-18.

15) 이러한 사서들의 고민은 독서치료라는 용어를 bibliodiagnostics, biblioguidance, literatherapy 혹은 counselor librarianship, 그리고 최근에는 supportive knowledge 등으로 대체하고자 했던 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Jami Jones, “A Closer Look at Bibliography,” *Young Adult Library Services*, Vol.5, No.1(Fall 2006), p.26.

16) Doll and Doll, *Ibid*, pp.17-18.

17) Brian Sturm, “Readers’ Advisory and Bibliotherapy : Helping or Healing?” *Journal of Educational Media & Library Science*, Vol.41, No.2(December 2003), pp.171-179.

성에 기초한 업무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면서 다른 영역에 대한 ‘월권 혹은 과욕’이 오히려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과 업무 영역까지도 훼손할 수도 있다는 냉철한 판단을 해왔던 것이다.

독서치료를 대하는 미국 사서들의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2009년 현재 미국의 주요 도서관에서 사서가 수행하고 있는 독서 관련 업무의 형태와 LIS 교육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 관련 교과목의 내용을 조사해 보면 보다 명료해진다.

Ⅲ. 미국의 독자상담과 독서치료

독서와 관련한 시민의 요구에 대처하고 시민들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국 도서관계에서는 어떤 유형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을까? 더불어 담당 사서에게 전문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해 미국의 LIS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관련 문헌에 대한 분석에 더해 미국 도서관계의 주요 기관, 단체, 그리고 일선 도서관들의 홈페이지와 자체 생산 자료를 참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서관계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미국도서관협회(ALA)를 비롯하여 의학도서관협회(MLA) 등 관종별 협의체¹⁸⁾와 ALA의 기능별 단체¹⁹⁾를, 일선 도서관 현장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주요 도시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²⁰⁾을 조사하였다. 이에 더해 LIS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주요 대학의 커리큘럼을 참조하였다. 한편, 필요한 경우, 해당 도서관의 담당 사서들 그리고 해당 대학의 교수들과 이메일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보완하였다.

1. 도서관 실무에서의 특징

2009년 현재, 미국 도서관계에서 독서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관찰할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은 독자상담에 대한 강조는 도처에 두드러지지만 독서치료에 대한 언급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가령, ALA나 공공도서관협회(PLA) 혹은 미국사서교사협회(AASL)와 같은 전국적인 도서관단체들은 독서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차치하고 기본적인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전국적인 도서관단체 중에서는 의학도서관협회(MLA)에서만 “Mental Health Information”이라는 광

18) 대학도서관협회(ACRL), 공공도서관협회(PLA), 사서교사협회(AASL) 등.

19) Reference and Users Services Association(RUSA), The Young Adults Library Services Association(YALSA), 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ALSC) 등.

20) New York, LA, Chicago, Seattle, Houston, Miami, Columbus(OH) 등지의 공공도서관들과 Harvard, Stanford,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Wisconsin, University of Texas, UCLA 등 주요 대학의 도서관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의의 주제 하에 독서치료를 소개하면서, 의학사서 혹은 병원사서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었다.²¹⁾ 그러나 막상 의학사서나 병원사서의 관심이 Health Information Literacy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MLA의 주요 사업도 건강정보소스의 개발과 관리 그리고 건강정보활용법의 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었고,²²⁾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과 교육은 상대적으로 허술하였다.

독서치료에 대한 미미한 관심은 일선의 도서관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독서치료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일부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독서치료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를 위해 상황별 독서목록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거나, 상황별 실물 자료를 별도의 서가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Self-Help 형태의 서비스가 보편적이었다.²³⁾ 단지,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병원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등에서 사서들이 정신의학 전문의나 상담교사 등과 협력하여 임상적 혹은 발달적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사서의 역할은 독서목록(booklists)의 개발에 참여하거나 실물 장서의 관리에 한정되어 있었다.²⁴⁾

이렇듯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있는 독서치료와는 달리 독자상담에 대한 미국 도서관계의 관심은 도처에서 두드러졌다. ALA를 비롯한 주요 도서관단체들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서 독자상담은 주요 테마였으며, 독자상담의 실무와 이론을 다룬 다양한 자료와 연구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²⁵⁾ 또한 도서관 현장의 관심을 반영하듯, RUSA나 YALSA와 같은 ALA의 산하단체에서는 독자상담 업무의 수행을 위한 상세한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며, 사서들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정규 강좌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²⁶⁾ 독자상담 업무가 활발하게 이

-
- 21) 구체적으로 *Caring for the Mind : Providing Mental Health Information at Your Library*라는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http://cech.mlanet.org/node/162>> [cited 2009. 8. 23].
- 22) <<http://www.mlanet.org/resources/healthlit/>> [cited 2009. 8. 23].
- 23) 예를 들어, Indiana주의 Madison-Jefferson County Public Library나 Ohio주의 Defiance Public Library에서는 bibliotherapy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상황별(가령, adoption, alcoholism, Bullies, cancer, death of a friend, earthquakes, physically handicapped, single Parent Household, etc) booklists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mjcp.org/bibliotherapy>> [cited 2009. 8. 14] ; <<http://www.defiance.lib.oh.us/yuothadd.asp>> [cited 2009. 8. 14].
- 24) MLA에서 주관하는 연례회의에서 임상적 독서치료에 관한 논문이 간혹 발표되거나 학교도서관 관련 저널을 통해 발달적 독서치료의 실무 사례가 간혹 보고되고 있다. 다음은 후자의 예이다 : Amy Catalano, "Making a Place for Bibliotherapy on the Shelves of a Curriculum Materials Center : the Case for Helping Pre-serve Teachers Use Developmental Therapy in the Classroom," *Education Libraries : Children Resources*, Vol.31, No.1(Spring 2008), pp.17-22.
- 25) 관련 잡지나 저널에도 다양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가령, *Library Journal*이나 *Public Libraries*와 같은 잡지는 물론이고 *Library Trends*, *The Reference Librarian*,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와 같은 학술저널에는 독자상담에 대한 연구논문과 에세이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 26) <<http://www.ala.org/ala/mgrps/divs/rusa/development/readersadvisory>> [cited 2009. 8. 28] ; <<http://www.ala.org/ala/mgrps/divs/yalsa/yalsamemonly/yalsamounder>> [cited 2009. 8. 28].

루어지고 있다는 증좌는 일선의 도서관들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는데, 대도시의 주요 공공도서관들에서는 물론이고 대학도서관들에서도 독자상담은 도서관의 핵심 업무로 인식되고 있었다.²⁷⁾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독자상담 업무의 수행 방식은 간접적인 형태가 보편적이었다. 개별 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기능은 확연히 축소되고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Self-Help 방식이 대세였다. 즉, 이용자의 문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실질적인 독자상담을 진행하기보다는 문제 상황에 적합한 독서목록이나 실물장서를 개발하는데 치중하고 있었다. 물론 면담을 통해 개별 이용자의 배경과 관심 그리고 요구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전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개별 이용자를 위한 독자상담 서비스는 거의 축소되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미리 개발해 놓은 연령별 혹은 문제 상황별 booklists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문제 해결에 적합한 자료로 안내(guidance)하는 방식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Self-Help 방식은, 앞서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중문화'가 미국의 공공도서관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던 1980년대부터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 Self-Help 방식이 확산되면서 독자상담 업무는 독자보다는 자료에 그리고 상담보다는 도구의 개발에 치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소수를 위한 질적 서비스보다는 다수를 위한 양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러한 독서상담 업무의 '계량화' 나아가 도서관서비스의 '대중문화 지향화'는 독서치료와 같은 소수를 위한 '전문화된' 서비스가 도서관에 뿌리를 내리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일부에서나마 진보적 사서들이 나서서 소외계층과 빈곤집단의 정보복지를 위해 독서치료를 시도해 보고자 하였지만, 효율성과 형평성을 내세운 경영 논리 앞에 움츠러 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독자상담조차 업무 내용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독서치료가 발붙일 자리는 더더욱 줄어들었던 것이다.

2. 교육과 연구에서의 특징

독서치료와 독자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드러나는 미국 도서관 현장의 특징은 관련 영역에서 그들이 수행해온 교육과 연구 활동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먼저, 교육활동에 있어서의 특징은 주요 LIS 교육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조사하여 독서치료 혹은 독자상담 관련 교과목의 운영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하였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뚜렷한 특징은 독서치료에 관한 교과목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독자상담에 관한 교과목은 상대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에서 개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삼은 20개의 LIS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독서치료를 독립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었던 반면, 독자상담을 독립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5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또 다른 5개 프로그램에서는 인접 교과목을 통해 독자상담

27) Julie Elliott, "Academic Libraries and Extracurricular Reading Promotion,"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46, No.3(Spring 2006), pp.34-43.

의 원리와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절반에 이르는 프로그램에서 독자상담 영역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다(표 1 참조).

〈표 1〉 미국 LIS 교육프로그램의 Readers' Advisory 과목 개설 현황

대 학	교육프로그램	교 과 목
Florida State University	CI	개론 등에서 간략 소개
Indiana University	SLIS	Adult Readers Advisory
Kent State University	SLIS	Reader's Advisory Services to Adults
Louisiana State University	SLIS	Literature & Methods for Readers' Advisory
Rutgers University	DLIS	참고서비스와 연계하여 중점 소개
SUNY at Albany	DIS	개론 등에서 간략 소개
Syracuse University	SI	개론 등에서 간략 소개
University of Arizona	SLIS	Readers' Advisory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UCLA	DI	어린이·청소년 자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중점 소개
University of Maryland	LBSC	개론 등에서 간략 소개
University of Illinois	GSLIS	개론 등에서 간략 소개
University of Iowa	SLIS	성인 자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중점 소개
University of Kentucky	SLIS	개론 등에서 간략 소개
University of Michigan	SI	개론 등에서 간략 소개
University of N. Carolina	SLIS	어린이·청소년 자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중점 소개
University of Pittsburgh	SLIS	개론 등에서 간략 소개
University of S. Carolina	SLIS	개론 등에서 간략 소개
Univ. of Texas, Austin	SI	개론 등에서 간략 소개
University of Washington	SI	Adult Reader Services in Public Library
Univ. Wisconsin, Madison	SLIS	어린이 자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중점 소개

필자의 이러한 조사결과는 최근에 Fleet에 의해 수행된 조사결과와도 유사한데, Fleet은 ALA에서 인가한 56개 LIS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28개가 독립적인 혹은 인접 교과목에 연계된 형태로 Readers' Advisory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²⁸⁾ 필자의 조사결과는 또한 2000년에 Watson 등이 56개 LIS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했던 조사결과에도 근접해 있다. 당시 그들의 조사결과에서는 14개 LIS 프로그램에서 Readers' Advisory를 독립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²⁹⁾ 그러나 이러한 교과목의 개설 비율은 도서관 현장에서 독자상담이 차지하는 업무 비중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독자상담을 전문 학위

28) Connie Van Fleet, "Education for Readers' Advisory Servic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47, No.3(Spring 2008), p.227.

29) Dana Watson and the RUSA CODES Readers' Advisory Committee, "Time to Turn the Page : Library Education for Readers' Advisory Service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40, No.2(Winter 2000), pp.143-146.

(MLIS)를 위한 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LIS 프로그램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은 독자상담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도서관현장에서 독자상담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까닭에 대한 관련 학자들의 설명은 간결하다. “독자상담 업무는 이론적 기반보다는 실무적 경험을 더욱 필요로 하며, 실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법은 강단에서의 교육에 의해서보다 현장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습득될 수 있다”는 믿음이 교육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실무 사서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독자상담을 독립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5개 LIS 프로그램 중에서 전임 교수가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5곳 중에서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4곳은 모두 실무 사서로 구성된 강사들에 의해 강좌가 꾸려지는 있는 까닭도 그러한 믿음에서 연유한다.³⁰⁾

이렇듯 독자상담 교육에 있어서는 이론보다는 실무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실무에 대한 강조는 2009년 현재 개설되어 있는 관련 강좌의 내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즉, 거의 모든 강좌의 내용이 독자상담의 이론적 토대에 대한 이해보다는 실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³¹⁾ 그러나 이러한 실습 위주의 강좌 구성은 해당 교과목의 학문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결국, 교과목의 학문성을 중시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독립 교과목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앞서 설명한대로, 전체 LIS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독자상담을 독립 교과목으로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해가 거듭될수록 줄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약 25%의 프로그램에서만 독자상담이 독립 교과목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독자상담 교과목의 내용이 이렇듯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변화해온 과정은 도서관에서의 독자상담 업무가 독자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던 방식에서 표준독서목록의 개발을 통한 간접 방식으로 변해온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는 또한 독자상담 강좌를 대신하여 연령별 혹은 계층별 자료론이나 서비스론이 전체 교과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해 온 현상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처럼 1980년대 이후의 미국의 독자상담 업무에서는, 도서관학자 Monroe 등의 역설에도 불구하고, 사서와 이용자와 자료(책) 사이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갖는 중요성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해 갔다. 독자상담 업무의 비중은 도구인 표준독서목록의 개발에 주어졌고, 독자의 내면적 욕구와 독서행태에 대한 분석과 대응은 점차 그 비중을 잃어갔던 것이다.³²⁾

30) 이에 더해, 독자상담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주요 서지도구와 독서목록들 또한 대부분 실무 사서들에 의해 개발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Fleet, *ibid.*, pp.228-229.

31) 구체적으로, 수강생들은 다양한 픽션과 논픽션을 직접 읽고, 해당 책의 appeal factors를 식별해 내고, 그 책에 대한 주석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직접 독자나 독자상담 사서를 접촉하여 비통보식 조사를 하는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도서관 현장의 실무 감각을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2) Monroe는 독자상담 업무의 핵심 요소로 ① 독서욕구를 지닌 이용자, ② 책에 대해 해박한 사서, ③ 이용자의 배경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 ④ 선정된 책의 리스트, ⑤ (가능하다면) 독후의 논의과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Margaret Monroe, “Emerging Patterns of Community Service,” *Library Trends*, Vol.28(1979), pp.130-132.

이렇듯 독자상담 교육과 실무의 내용이 지나치게 '도구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 LIS 교육자들은 물론이고 현장 사서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사서의 직업적 위상을 견고히 하고 도서관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감을 강화해 가야 하는데, 도구의 개발을 통한 간접 서비스가 확충되면서 경영진들이 바라는 업무의 효율성이 상승되었을지는 몰라도 이용자와의 연대감은 오히려 낮아진 현상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독자상담이 전통적 기능을 회복하여 개별 독자에 대한 상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교과목의 내용을 보강할 것.³³⁾ 특히, 독자행태와 독서행태에 대한 이론을 보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³⁴⁾

이러한 주장은 2000년대 중반이후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가령, Dilevko와 Magowan은 1980년대 초입부터 Saricks 등이 주장해온 "독자들이 원하는 책을 주라(Give them what they want)"는 대중 친화적 슬로건³⁵⁾이 가져온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있다. 그들은 Saricks 등의 주장이 도서관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대중적 출판업자의 이익을 최대화 하면서 시민들을 우민화 해온 시장주의자들의 농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³⁶⁾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2009년 현재, 미국 도서관계에서는 "시대 환경에 부합하면서 도서관의 대중적 기반을 유지하려면 대중친화적인 기존의 방식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 여전히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가 어떻게 종결될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독자상담 업무의 혁신을 놓고 미국 도서관계에서 또 한 차례의 갈등과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³⁷⁾

IV. 한국의 독자상담과 독서치료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도서관계의 독서 관련 활동을 한국 도서관계의 독서 관련 활동에 비교해 보면 여러 측면에서 역설적인 그러나 학술적 관점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다.

33) 가령, Smith 같은 학자는 독자상담 교과목에 ① 픽션과 논픽션의 특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② 독자에게서 드러나는 인간적 속성을 이해하고, ③ 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책의 appeal factors를 찾아내고, ④ 독자와의 상담과정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Duncan Smith, "Talking with Readers : A Competency Based Approach to Readers' Advisory Service,"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40, No.2(Winter 2000), pp.135-142.

34) David Beard and Kate Vo Thi-Beard, "Rethinking Book : New Theories for Readers' Advisory,"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47, No.4(Summer 2008), pp.333-335.

35) Joyce Saricks, *Readers' Advisory Service in the Public Library*, 1st ed(Chicago : ALA, 1982).

36) Juris Dilevko and Candice Magowan, *Readers' Advisory Service in North American Public Libraries, 1870-2005*(Jefferson, NC : McFarland & Company, Inc., 2007).

37) Neli Hollands, "back to the Futrure? a Response to Dilevko and Magowan,"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Vol.47, No.2(Winter 2006), pp.127-131.

이에 지금부터는 독서와 관련한 시민의 요구에 대처하고 시민들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도서관계에서는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며, 담당 사서의 양성을 위해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시행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에 더해,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주요 도서관단체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주요 국가 도서관들, 그리고 일선의 공공 및 대학도서관들의 홈페이지와 그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를 참조하였다. 이에 더해 독서 관련 교과과정의 현황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32개 문헌정보학과와 커리큘럼을 분석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사서들과 전공 교수들의 의견을 참조하였다.

1. 도서관 실무에서의 특징

이 글의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국 도서관계의 독서 관련 실무에 있어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산이다. 2009년 현재, 전국에 걸쳐 약 50여개의 공공도서관이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도서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공공 및 대학도서관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대상 또한 다양하여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대에 따라 혹은 주부나 학생 등 신분에 따라 강좌가 개설되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 또한 다양하여 독후의 그룹토론 방식에서부터 독서치료사 훈련을 위한 전문 과정까지 운영되고 있다.³⁸⁾ 무엇보다 현장 사서들의 관심이 나날이 커지다보니 가히 ‘열풍’이라할 만큼 확산 속도가 빨라 머지않은 장래에 전국의 거의 모든 공공도서관들이 독서치료 업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활발한 독서치료 업무에 비해, 독서 관련 도서관서비스의 기본에 해당되는 독자상담 업무는 실행의 흔적이 희미하다.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 언급하였던 전통적 관점의 독자상담은 차치하고 문제 상황별 혹은 테마별 표준도서목록의 개발과 제공과 같은 간접적인 형태의 서비스조차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열악한 실정은 전문직 협회의 활동 내역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04년과 2005년에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도서목록』까지 출판해 낸 바 있는 한국도서관협회지만 독자상담 업무에 관해서는 어떠한 자료나 매뉴얼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³⁹⁾ 그나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현장 사서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독서지도 혹은 독서상담에 관한 단기

38) 2009년 현재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별 주요 도서관은 다음과 같다 : 서울의 노원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 부산의 시민도서관, 부전도서관 ; 대구의 북부도서관, 수성도서관 ; 대전의 안산도서관 ; 인천의 화도진도서관 ; 울산의 중부도서관 ; 경기도의 도립중앙도서관, 성남중앙도서관 ; 강원도의 강릉시립중앙도서관 ; 충청북도의 충북중앙도서관 ; 충청남도의 충청남도평생교육원 ; 전라북도의 정읍시립도서관 ; 전라남도의 무안도서관, 목포도서관 ; 경상북도의 구미도서관, 영주도서관 ; 경상남도의 김해도서관, 양산도서관 ; 제주도의 제주도서관. 이외에 대학도서관 중에서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9) 한국도서관협회,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도서목록 : 성인편(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4) ;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도서목록 : 청소년·어린이편(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5).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⁴⁰⁾ 일선의 도서관에서 독자상담 관련 업무가 나름대로 수행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할 뿐이다.

그러나 일선 도서관들에서 생산해낸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관련 업무의 내용을 조사해보면 독자상담 업무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음을 실제로 확인하게 된다. 독자상담 관련 업무 실적은 찾을 수 없고 여기저기 이벤트성 사업 실적만 무성하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이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독서지도 혹은 독서교육을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도서관 견학과 이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불과하다. 도서관의 핵심 사업으로 주최하는 독후감대회나 독서퀴즈대회 또한 도서관 홍보를 위한 이벤트 성격의 행사에 다름없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도서관처럼 지역 주민을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개발과 실물 자료의 제공에 적극적인 것도 아니다. 상황이 이러하네,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목록과 실물 장서 코너가 이들 공공도서관에서 하나둘씩 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 독자를 위한 기본 서비스는 유명무실한데, 몇 단계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년 전 필자는 한국 도서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던 유사한 현상을 설명하면서 그 까닭에 대해 나름대로 논의한 바 있다.⁴¹⁾ 당시의 주장처럼, 제대로 된 참고서비스조차 실천해 본 적이 없는 한국 도서관계에서 참고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독자상담을 이해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차피 무리였을지 모른다. 이는 관련 용어를 도입하여 번역하는 단계에서부터 예견할 수 있었다. 즉, Readers' Advisory보다는 Reading Guidance를 선호하면서, 그 의미를 독자의 독서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내 행위로 해석하지 않고 도서관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방법을 지도하거나 교육하는 행위로 해석하고자 했을 때부터 이미 내포되어 있던 한계였다.⁴²⁾ 책을 읽기 원하는 독자에게 그들의 배경, 관심, 그리고 요구에 적합한 책을 제공하기보다 독서하는 방법이나 태도 그리고 이론을 가르치고자 하였다면 어떤 독자가 그러한 서비스에 관심을 두었겠는가?⁴³⁾

이에 더해, 도서관 실무의 역할 모델이었던 미국 도서관계의 업무 방식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역사성과 우리의 실정을 냉철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한국 도서관계의 잘못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령, 독자상담에 있어 대립되는 두 견해 중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미국

40) 2009년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사서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5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독서지도기초(1, 2기), 독서지도심화, 어린이독서상담, 그리고 독서치료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http://www.ni.go.kr/education/training/trainingo3.html>> [cited 2009. 9. 1].

41) 이제환, "한국 문헌정보학에서 참고봉사와 정보봉사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4호(2007. 12), pp.299-323.

42)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 독서지도는 Reading Guidance를 번역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독서교육과 동일한 개념으로 독서하는 태도, 지식, 기술능력,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개발의 지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 p.93).

43) 더욱이 사서직(사서교사를 포함하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척박한 상태에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서관계를 지배해 오고 있는 ‘대중문화적 관점’에 과도하게 편중되다보니 독자상담의 역사성과 본질적 가치에 대해 왜곡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미국 도서관계에서는 오래 전에 활성화 되었던 독자상담 업무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의 사서들로서는 독자의 문제 상황에 사서가 직접 개입하는 행위 자체가 버겁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을지 모른다. 이렇듯 실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의 지적 기반 또한 허약하다보니 독서와 관련된 ‘왜곡된’ 업무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2. 교육과 연구에서의 특징

독자상담과 관련한 지적 기반의 허약함은 한국 도서관계에서 그동안 수행해온 관련 연구물을 검토해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196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도서관계에서 독서지도 혹은 독서교육을 주제로 생산한 연구물(논문과 단행본)은 100여 편에 달한다.⁴⁴⁾ 이들 중 절반 이상이 2000년대 들어서 생산된 것으로 그 이전까지의 관련 연구활동이 매우 빈약했음을 보여준다. 연구의 양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그 내용이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물이 교육학 분야의 연구물과 내용적으로 대동소이하여, 독서(혹은 독서지도)의 역사, 방법, 이론에 집중되어 있다.⁴⁵⁾ 특정 독자집단을 위한 독서목록의 개발이나 도서선정의 방법을 다룬 연구물이 간간히 눈에 띄이지만 이들 또한 매뉴얼이나 지침서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독서지도나 독서교육이 아닌 독자상담의 역사, 사례, 방법, 이론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물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에서 어찌 관련 업무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졌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독자상담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는 문헌정보학 교육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표 2>에 정리하였듯이, 2009년 현재,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설립되어 있는 32개 문헌정보학과 중에서 ‘독자상담(론)’을 독립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과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비해, 약 88%에 이르는 28개 학과에서 ‘독서지도’ 혹은 ‘독서교육’을 독립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문헌정보학에서 독서 관련 교과 교육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독자상담 영역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지도 영역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4) 국회도서관의 학술지기사색인과 단행본목록에서 독서지도 혹은 독서교육을 도서관과 결합하여 검색한 결과이다. 동일 소스를 이용하여 교육학계에서 생산한 연구물을 탐색하니 수백 건이 넘는 자료가 검색되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독서교육(혹은 독서지도)를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학문분야가 무엇인지 자명해진다.

45) 가령, 교재로 출판된 단행본의 경우에도, 1978년에 출판된 손정표의 『독서지도방법론』에서부터 1997년에 출판된 김효정 등의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2002년에 출판된 김용철 등의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독서지도 혹은 독서교육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소개와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이에 비해 2008년에 출판된 한운옥의 『독서교육과 자료의 활용』에서는 독자와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 구성의 변화가 느껴지지만, 이 책 또한 독자상담 업무에 필요한 이론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교재로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

더불어, 독서지도 혹은 독서교육이 문헌정보 교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LIS 프로그램에서 독자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약 25%)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며, 교수진의 구성에서도 전임 교수의 비율이 약 43%에 달하고 있어 이 수치 또한 20%에 불과했던 미국에 비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프로그램의 독자상담 관련 과목의 개설 현황

대학	교과목	대학	교과목
강남대	-	상명대	독서지도
건국대	독서지도론	서울여대	-
경기대	독서지도	성균관대	독서지도론
경북대	독서지도론	숙명여대	독서지도
경성대	독서교육론	신라대	독서지도론
계명대	독서지도론	연세대	-
공주대	독서교육론	이화여대	독서지도
광주대	독서지도론	전남대	독서지도론
대구대	독서지도론	전북대	독서교육론
대구카톨릭대	독서지도론	전주대	독서교육
대진대	독서교육론	중부대	독서지도론
덕성여대	독서지도	중앙대	독서지도론
동덕여대	독서지도론	청주대	독서지도론
동의대	독서지도론	충남대	독서교육론
명지대	청소년 독서교육	한남대	-
부산대	독서교육론	한성대	독서교육론

‘독서지도론’이나 ‘독서교육론’은, 교과목의 명칭이 시사하듯이, 강좌의 구성 또한 도서관 현장에서 ‘독서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32개 학과로부터 수집한 교수계획표들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앞서 인용했던 Monroe가 독자상담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던 기본 내용은 차치하고 미국의 Readers’ Advisory 강좌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⁴⁶⁾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의 모든 강좌가 독서와 독서교육의 의의, 목적, 이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몇몇 강좌에 간간히 독서자료에 대한 소개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게다가 학과와 담당 교수에 따라 강좌의 내용에 편차가 커서 동일 교과목이 가져

46) 즉, 도서관이용자의 독서요구와 행태 그리고 계층별 독서자료의 특성과 변화 등에 대한 내용은 모든 강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Indiana University의 SLIS에서 개설하고 있는 Adults Readers’ Advisory 강좌의 교과개요는 다음과 같다 : “A review and discussion of trends reflected in subject content and use of book and nonbook materials for patrons in secondary school and public libraries in relation to changing young adult and adult needs and the role of libraries in meeting such needs.”
 〈<http://www.slis.indiana.edu/courses/course.php?course=S524>〉 [cited 2009. 9. 2].

야할 일관성조차 결여하고 있다. 이처럼 교과목의 명칭에서의 차이는 강좌의 내용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교과목은 미국의 교과목과 달리 도서관 현장에서 독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서치료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 도서관계에 독서치료의 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유중희가 Hannigan의 논문을 번역하여 국회도서관보를 통해 소개하던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⁴⁷⁾ 그러나 당시에는 도서관계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손정표, 한상완 등이 '독서요법'이라는 명칭으로 원리를 소개하고 적용 방법을 모색하면서 미약하게나마 관심의 맥을 이어갔다.⁴⁸⁾ 이후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관련 연구물이 간헐적으로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도 학계의 관심은 몇몇 학자에 제한되어 있었다.⁴⁹⁾ 그러던 것이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독서치료'라는 명칭으로 학계의 관심을 본격적으로 끌기 시작하여, 이후 6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⁵⁰⁾에만 30편이 넘는 연구물을 발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독서치료 연구는 문헌정보학이 주도해 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⁵¹⁾

이러한 독서치료 관련 연구물들 중에서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연구성과를 세밀히 들여다 보면, 2009년 현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독서치료 열풍'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 『책은 치유하는 힘이 있는가』, 2002년 1월에 부산대학교 김정근 교수가 주도하는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이하, 책정연)'에서 만들어낸 대학원생들의 학기논고집이다. 허술한 외양의 이 자료집과 연이어 생산된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한 자가치유서 안내』는 독서치료에 관한 '한국형' 연구의 출발점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⁵²⁾ 김정근 교수와 책정연의 연구성과가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에게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갖게 된 것은 그들의 연구가 스스로의 체험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특히, 스스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깨달은 사실을 딱딱한 논문의 틀에서 벗어나 일상적 이야기 형태로 풀어감으로써 현장 사서들의 가슴에 쉽게 다가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47) 유중희, “도서관과 비블리오세라피,” 국회도서관보, 제1권, 제3호(1964. 6), pp.133-139.

48) 한상완, “독서요법학의 원리에 입각한 청년 독서지도에 관한 소고,” 송의여전도서관학회지, 제3호(1976. 3), pp.11-13 ; 손정표, “비행소년 인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의 개발과 도서관인의 사회적 책임,” 도서관, 제32권, 제9호(1977. 10), pp.39-49 ; 손정표, “정신요법으로서 독서요법에 관한 소고,” 도서관, 제33권, 제1호(1978. 1), pp.33-42.

49) 1990년대 후반부터 관련 연구물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변우열, “비행청소년 인격치료를 위한 독서요법,” 도서관학논집, 제26집(1997. 여름), pp.131-168 ; 윤정옥, “독서요법의 이론과 적용,” 도서관, 제34호(1998), pp.47-64 ; 유혜숙, “노인의 우울증 해소를 위한 독서요법,”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제1호(1999. 3), pp.5-22 ; 이희정·박옥화, “독서요법이 대학생의 자아 정체감 정립에 미치는 효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2001. 9), pp.331-351.

50) 2001년~2009년 사이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이다.

51) 미국의 경우 독서치료 관련 연구는 교육학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그 뒤를 보건학(의학과 간호학을 포함하는)과 문헌정보학이 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황금숙, “외국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2호(2005. 6), p.313.

52) 이에 더해 같은 해에 김정근이 송영임과 함께 생산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와 독서치료』는 한국의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치료를 도서관서비스로 도입하게 만드는데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2000년 이후 들어 연구성과가 축적되기 시작하고 그에 기반한 도서관 현장에서의 응용 활동이 늘어나면서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은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까지 확산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독서치료를 독립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과가 6곳이나 생겨났으며,⁵³⁾ 독서지도론이나 독서교육론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의 절반 이상이 강좌의 내용에 독서치료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앞서 언급하였던 미국 LIS 교육프로그램의 실정에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며, 지금의 추세라면 독서치료를 독립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학과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듯 독서치료와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한국 도서관 현장과 교육계의 변화는 앞서 언급한 독자상담의 경우와는 궤를 달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도서관 현장의 변화가 교육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면에서 전례가 없었기에 향후 한국 도서관계에 풀어가야 할 여러 과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V. '한국적' 현상의 의미와 과제

“독자상담 서비스의 부재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번성.” 도서관 참고서비스의 3대 기능 중의 하나인 Guidance와 관련하여 한국 도서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의 축약이다. 이용자서비스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독자상담은 너무도 부실한데 그보다 고급 단계인 ‘강화된’ 독자상담은 인기리에 확산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적’ 현상이다. 이에 지금부터는 한국 도서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갖는 의미와 원인을 규명해 보고, 이러한 고유 현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한국형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한국적 현상의 의미와 원인

앞서 살펴보았던 미국 도서관계의 실태는 도서관에서 독자상담 업무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성숙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거시적 관점에서 독서문화와 도서관문화의 건강성 확보는 기본이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사서직의 전문성은 업무에 관한 이론적 기반의 건실함과 실무에 임하는 태도의 성실함이 결정한다. 후자가 실무에 종사하는 사서 집단이 스스로 감당하여야 할 몫이라면, 전자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교육계가 감당하여야 할 몫이다. 그런데 한국의 도서관계에는 전자의

53) 2009년 현재, 숙명여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부산대 등 6곳에서 학부 혹은 대학원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실함과 후자의 무관심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특히, 업무의 개념에 대한 혼돈이 처음부터 있었으며 한국적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뿌리를 내리기에선 거시적, 미시적 조건 중에 어느 하나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면서 한국 도서관계의 외형적 성장은 눈에 잡힌다.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을 둘러싼 그리고 속내의 토양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불현듯 시작된 독서치료는 과속을 우려할 정도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다. 도서관의 것이라고 배타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업무의 이론적 기반조차 아직 미약하고, 업무를 담당할 사서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는데, 현장 사서들의 태도에서는 관심을 넘어 열정이 넘쳐난다. 독자상담에는 무관심했던 현장 사서들로 하여금 독서치료에 주목하게 하고,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고객들로 하여금 '사서의 존재'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존재감조차 없는 독자상담과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기에 전국의 사서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한국의 도서관문화를 거듭나게 하는 대열을 주도하고 있는 것일까?

1970년대 말, 미국 도서관계에 독서치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문하였던 Rubin은 '그래야 하는 이유'로 당시 미국사회의 여러 특징을 제시한 바 있다. 첫 번째 특징으로 그는 미국시민들 사이에 확산되던 자아충족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들고 있다. 실제로 1970년대는 "Me Decade"라고 칭해질 정도로 미국시민들 사이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하고 있었다. 두 번째 특징으로 그는 미국시민들 사이에 급증하던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을 들고 있다. 실제로 1970년대는 TV의 영향으로 범죄의 이면에 자리 잡은 심리적 요인이 부각되면서 인간행동의 심리적 측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고 있었다. 마지막 특징으로 그는 미국시민들 사이에 증대하던 사회부적응자를 위한 공공 서비스의 확대 요구를 들고 있다. 당시 정신질환자나 범죄자들의 조기 사회복귀가 늘어나면서 이에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은 복지관이나 도서관 같은 공공 기관들이 복지자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서비스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⁵⁴⁾

Rubin의 글을 30년이 지난 지금 길게 인용하는 까닭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과제가 1970년대의 미국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간심리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진열대를 몇 년째 채우고 있는 대중용 심리서적들이 이를 대변한다. 나아가, 폭력과 불륜 그리고 범죄는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며, 주인공들이 벌이는 꼬이고 꼬인 심리적 갈등은 시민들의 일상적 마음까지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어디 그뿐이랴! 정서적 불안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비인간적 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적, 개인적 노력은 미미한 상태이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시적 배경이다.

54) Rhea Rubin, "Uses of Bibliotherapy in Response to the 1970s," *Library Trends*, Vol.28, No.2(Fall 1979), pp.239-241.

이에 더해, 언제부턴가 '시민 친화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독서 캠페인 또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삶에 있어 책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다 보니 시민들의 독서욕구에 자그마한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던 차에 거주 지역에 하나둘씩 도서관이 세워지고 있다. 무상으로 책을 빌려볼 수 있는데 돈 때문에 외출도 삼가고 집안에서 소외감과 우울함을 달래 오던 주부들이나 노인들에겐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공공시설이다. 게다가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명칭이 예사롭지 않다. 평범한 언어에는 내성이 생겨 자극조차 느끼지 못하는데 독서치료는 강렬하고 무언가 있어 보인다. 특히, 기존의 '독서지도'나 '독서교육'이니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웬지 자존심이 거슬렸는데 독서치료에서는 전문성이 느껴져 마음이 열린다.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외형적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배경과 외형적 요인만으로 독서치료와 관련된 한국적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방의 공공도서관에서 자그마하게 시작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급속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에는 한국형 독서치료 프로그램 자체가 갖는 내면적 고유성이 있다. 주창자인 김정근은 그를 가리켜 '체험형 독서치료'라고 칭하는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책을 읽어가면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그룹 테라피 형식을 띠고 있어 철저히 '참가자 친화적'이다. 일반적 독서치료처럼 치료사도 없고, 기존의 독서교육이나 독서지도처럼 선생도 강사도 없다. 모두가 선생이고 모두가 학생이다. 책을 지속적으로 읽어간다는 행위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지만 인내가 조금만 따라준다면 그 효과는 진짜 진국이다.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는 내면에는 이처럼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퍼뜨리는 '효과'에 대한 입소문이 있다.

내면적 요인이 어디 그뿐이라!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험적 적용 과정에서 초기 주도자들이 보여 주었던 헌신과 열정, 그에 더해, 그들이 느꼈던 직업적 희열을 동료 사서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지속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한국형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지방 도서관계의 자그마한 실험으로 묻혔을지 모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책정연의 참가자들은 그들의 절절한 경험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일에도 열심이었다. 체험담이 모여 자료집이 되고 학기논고가 모여 논문집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집과 논문집이 다듬어지고 보완되어 단행본들로 세상에 나왔다.⁵⁵⁾ 이러한 소통의 도구는 도서관이 주도하는 독서치료의 당위성을 동료 사서들에게는 물론이고 독서치료에 관심을 가져온 인접 분야에도 인식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2009년 현재, 한국 도서관계의 독서치료는 눈부신 성공을 보장받고 있다. 독서치료의 씨앗을 뿌린 자들은 여전히 수레의 앞바퀴를 성실히 끌고 있으며, 전문성에 기반한 도서관서비스의 제공에 목말라 있던 현장 사서들이 수레의 뒷바퀴를 열심히 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수레를 한국 문헌정보학의 고유 영역으로 받아들여 도서관 발전을 위한 온전한 도구로 만드는 일은 학자

55) 그들이 2003년부터 생산해낸 단행본 형태의 자료만 10종에 육박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에 그들이 생산한 자료이다 : 김정근, 김경숙, 김은엽, 독서가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 : 체험형 독서치료 이야기(파주 : 한울, 2009).

들의 몫으로 넘겨져 있다. 현장의 눈부신 성공을 이론화하고 그 이론을 미래의 현장을 책임질 후학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항상 학자들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가? 여기서는 우선, 독서치료의 한국적 현상이 범용성을 갖춘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2. 한국형 모델로의 발전 과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독서치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론과 모델의 대부분은 정신의학이나 임상심리 분야에서 개발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서치료가 사서가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문 업무의 하나로 공인을 받으려면, 발달적 독서치료를 주도해온 교육학에서처럼 문헌정보학에 뿌리를 둔 이론적 기반을 확보하거나 혹은 도서관 현장에서의 누적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모델이나 이론을 개발해 내야만 한다. 앞서 인용했던 Rubin이 ‘발달적 독서치료’를 ‘확장된 혹은 강화된 독서상담’과 연계하고자 시도했던 것이 전자의 사례라면,⁵⁶⁾ 김정근이 ‘체험형 독서치료’를 한국형 모델의 원형으로 개발해 가고 있는 것은 후자의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체험형 독서치료는 그 토착성과 현실성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기반 독서치료의 한국형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여전히 행위의 이론적 근거가 허약하고⁵⁷⁾ 공식 업무로 확장하기에는 비용효과와 형평의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이다.⁵⁸⁾

이처럼 체험형 독서치료가 한국형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근거에 더해 경영과 서비스 측면에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현단계에서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 중의 하나는 영국 도서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를 소수를 위한 심층 프로그램과 다수를 위한 기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하되, 다수를 위한 기본 프로그램은 영국의 Books on Prescription Scheme을 참조하여 개발해 가는 것이다.⁵⁹⁾ 구체적으로, 현재의

56) 근자에도 유사한 목적의 연구는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자료는 그러한 연구 경향을 보여 준다 : Ya-Ling Lu, *How Children's Librarians Help Children Cope with Daily Life : An Enhanced Readers' Advisory Service*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CLA Department of Information Studies, 2005).

57) 체험형 독서치료에서 사서의 역할은 프로그램의 기획자와 진행자로 제한된다.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진단이 사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니 ‘전문성’ 혹은 ‘자격’에 관한 시비는 일단 비켜갈 수 있다. 그러나 기획 단계, 실질적인 처방 단계에 해당하는 독서목록의 선정이 사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처방권을 둘러싼 시비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58) 앞서 소개하였듯이, 미국의 도서관계에서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독자상담 업무가 질에서 양 위주로 변질된 데에는 도서관의 재정 축소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만 했던 경영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59) 영국의 Books on Prescription Scheme은 의사협회와 공공도서관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Self-Help bibliotherapy 프로그램이다. 상황별 독서목록(BoP)의 개발과 유지 그리고 독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책’ 처방전의 발행은 의사(GPs)들이, 그리고 독서목록에 해당하는 실물장서의 유지와 처방전에 따른 책의 제공은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들이 담당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실험적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쇠퇴해가던 공공도서관의 사회성과 공익성을 부각시키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Liz Brewster, "Medicine for the Soul : Bibliography," *APLIS*,

체험형 독서치료는 소수를 위한 심층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되, 다수를 위한 Self-Help 방식의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하여 일선의 도서관에 보급해 가는 방식이다.⁶⁰⁾ 한국 도서관계에서는 2004년과 2005년에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을 개발하여 일선 도서관에 제공한 바 있으니 실험적 운영을 위한 기본은 이미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의 본질은 남아있다. 즉, 객관적 권위를 가진 공인된 소스(즉, 독서목록)를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격 혹은 전문성의 문제가 남아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편찬한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이 또는 책정연 등에서 편찬한 ‘독서목록’들이 과연 치료 행위에 동원될 수 있는 공인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영국의 Books on Prescription 혹은 미국의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독서치료를 위한 독서목록과는 달리, 한국의 독서목록은 문헌정보학자와 현장 사서에 의해 개발되었다. 개발자들의 독서체험에 근거하여 책들을 선정하였지, 그 과정에 정신의학 혹은 심리치료 전문가의 참여는 없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 유지를 위한 보조식품의 기능은 할 수 있겠지만,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으로 기능하기에는 ‘공인된’ 절차를 결여하고 있다. 주관적 약효는 확실하겠지만, 선진 사회가 요구하는 객관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독서치료에 관한 진단과 처방의 과정에 사서가 개입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다시 말해 행위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지식 기반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독서치료의 진단과 처방 과정에 사서의 개입을 정당화할만한 이론적 근거는 정신의학이 주도해온 임상적 독서치료 분야나 심리상담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주도해온 발달적 독서치료 분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⁶¹⁾ 따라서 현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Rubin을 비롯한 여러 문헌정보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서치료를 독자상담의 ‘강화된’ 형태로 규정하면서 접근하는 것뿐이다.⁶²⁾ 이렇게 할 경우, 즉, 독자상담의 논리로서 독서치료를 설명하고자 할 경우, 독자상담과 관련한 기존의 이론적 근거들을 독서치료의 지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서가 주도하는 한국형 독서치료의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독서치료와 독자상담의 차이는 독자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적 차이에서 야기된다. 독서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문제가 대부분 정서적 불안 상태에서 비롯된다면, 독자상담에 있어

Vol.21, No.3(September 2008), pp.115-119.

60) 이러한 Self-Help 독서치료 시스템의 핵심은 상황별 독서목록의 개발과 최신성 유지, 현장에서의 실천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수집과 제공에 달려있다. 이러한 독서목록과 성공사례를 DB로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되, 개발과 운영은 일선 도서관들의 협력체제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 앞서 인용하였듯이, Sturm이나 Jones와 같은 문헌정보학자들이 ‘공인된 자격증’이 없이 사서는 절대로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치료 행위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독서와 관련된 사서 업무의 본질은 자료에 대한 guide 혹은 advise에 있지 사람에게 대한 counsel 혹은 treatment에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62) 실제로 한국 도서관계에서 2009년 현재 확산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 명칭이 ‘체험형 독서치료’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강화된 독자상담’의 성격을 진하게 띠고 있다.

서 독자의 문제는 대부분 인지적 결핍 상태와 관련을 갖는다. 즉, 독서치료가 정서의 불안정을 치유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독자상담은 인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독서치료와 독자상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려면 인지와 정서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야 한다.⁶³⁾ 이 관계만 이론적으로 입증된다면, 독자상담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해온 도서관에서 독서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은 훨씬 수월해진다. 그러나 독서치료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관심이 왜소해진 미국의 문헌정보학계에서 이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학자와 조우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이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작업은 독서치료를 사서의 업무로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도서관 현장을 가지고 있는 문헌정보학계에서 서둘러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의 문헌정보학자들에게 적극성이 요구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업무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문헌정보학자들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책무가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독서치료가 되었던 독자상담이 되었던 업무를 담당할 전문 사서를 양성하는 일 또한 문헌정보학자들의 몫이다. 앞서 독서 업무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비교하면서 언급하였지만, 한국의 현행 교과목 구성으로는 한국 도서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독서 서비스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교과목의 개정과 신설을 포함하는 커리큘럼 전반에 걸친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특히, 유명무실한 독자상담 업무를 활성화하고 독서치료 업무의 지적 기반을 갖추게 하기 위한 문헌정보학계와 전문직 협회 차원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

교과목의 개편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작업은 독자상담 관련 교과목의 정비와 보완이다. 현재의 독서지도 혹은 독서교육 관련 교과목은 한국의 도서관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독자상담의 원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 현장에서 독자상담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은 구체적으로 “適者에게 適書를 適時에 제공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이며, 이는 결국, 이용자론, 정보매체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론의 융합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완성된다. 나아가, 독서의 동기와 영향 그리고 사회성을 이해할 수 있고, 자료(스토리)의 문화적 맥락과 함축된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자료에 친숙하여 appeal factors를 분석하고 나아가 비평까지 작성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독자상담 업무를 위한 지적 기반은 온전히 갖추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교과목의 개편은 이러한 지식 기반을 고르게 갖추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독서치료와 관련된 교과목의 정비와 보완은 독자상담보다는 거시적이며 동시에 학제적 접근을

63) 현재 학자들 사이에서는 불확실성이 인지의 부족 상태를 채우려는 행위(즉, 정보추구)의 동기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남은 것은 불확실성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이상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혀내는 작업이다. 미국 문헌정보학계의 경우, 정보행태에 있어 감성적(affective) 요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Kuhlthau 등이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오고 있지만,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이다.

요구한다. 독서치료 또한 독자상담과 동일하게 “適者에게 適書를 適時에 제공하기 위한 지식 기반을 필요로 하지만, 업무의 성격이 자료에 대한 상담이나 안내를 넘어 이용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 행위를 합법적으로 하려면 한국사회가 공인하는 지식 기반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도서관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독서치료(임상적이든 발달적이든)는 심리치료의 방법이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즉, 독서는 치료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독서치료를 담당하는 사서는 심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된 지식 기반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치아기공사가 치과의사 노릇을 하려한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⁶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서관 기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관여하거나 앞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사서 혹은 사서지망생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교육방법은 정신의학이나 임상심리 분야와 협조하여 협동 학위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로 남겨두고, 보다 현실적으로는,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문헌정보 학부과정에서 심리치료 사에게 요구되는 최소 학점을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게 하거나 또는 기존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과정을 문헌정보학과나 국립중앙도서관 혹은 전문직 협회에 개설하여 이 과정을 이수하는 사서에게 독서치료 전문사서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 물론 이를 위해서는 문헌정보학계와 전문직 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며, 그러한 논의 과정에 정신의학이나 임상심리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협조를 끌어내는 작업 또한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VI. 결 론

“예전에는 사서가 전문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책을 찾아주거나 보고 난 책을 제자리에 꽂고 관리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어요. 책의 껍데기만 많이 알지 책을 얼마나 읽었겠느냐 하는 냉소적인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서선생님이 권하는 책을 받으면 신뢰감이 생겨요. 아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사서선생님께 좋은 책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가 되었지요. 전문가라는 믿음에 더해 친근감까지 생겼답니다(Y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수료자 L씨와의 면담록에서, 2009. 8.24).”

“처음에는 무관심했고 심지어 불쾌했어요. 몇몇 동료들이 공연히 설치는 통에 편안했던 직장 분위기가 어수선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몇 년째 운영되면서

64)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평균 사서들보다 고급 단계의 대학원 교육을 받은 미국의 사서들이 자신의 직무를 '독서치료를 위한 장서의 관리와 제공'에 국한하고 있는 이유를 곰곰이 되새겨야 보아야 한다.

저를 바라보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시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호칭부터 사서선생님으로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스스로없이 다가와서 책에 대해 묻기도 하고, 그때부터 저도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서 경력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보람도 느끼고,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이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K공공도서관 P사서와의 면담록에서, 2009. 8. 31).”

잘못된 인용문이지만 독서치료가 한국 도서관계에 가져다 준 선물의 내용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서구의 도서관문화를 수입한 지 반세기 넘어 처음으로 사서가 이용자에게 스스로없이 다가서기 시작했다. 이용자가 사서에 친근하게 다가서기 시작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독서치료는 한국의 도서관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도서관혁명’의 단초가 되고 있다. 도서관을 시민의 일상적 삶에 일부가 되게 하는 것. 그 목표를 향한 사서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 화려한 구호나 그럴듯한 모양도 갖추지 않고 지방의 작은 모임을 통해 초라하게 시작된 실험이지만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을 활짝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그들의 노력을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해왔던 자신에게서 문득 부끄러움을 보았다. 그래서 비록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험이 우리 도서관문화의 진정한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 글을 통해 고민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글을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의 속내조차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든다.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과 방안이라는 것에 변칙이는 새로움이 없으며, 토착성을 추구한다면서 또 다른 남의 이야기에 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 단지 진하게 살아있는 것은 “이 실험이 성공하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고언뿐이다.

정치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국가발전 이론 중에 ‘의존형 개발론’이 있다. 도입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元祖에 의존은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토착성을 가미하면 원조를 뛰어넘는 새로운 始祖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한국은 산업시대를 거쳐 정보시대를 풍미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의존형 개발의 실천적 모델을 만들어 왔다. 한국의 도서관 분야가 비록 도서관선진국에 비해 여러 면에서 낙후되어 있지만 독서치료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도서관 분야의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 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비록 순서는 바뀌었지만 독서치료 서비스의 강화가 한국의 사서들로 하여금 독자상담 서비스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이용자서비스를 원조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수만 있다면, 독서치료의 한국적 실험은 도서관후진국들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제3세계형 모델로 굳건히 발전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